



“아리셀 참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아리셀 참사 유족에게 투쟁기금 전달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아리셀 참사 투쟁기금을 마련하여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산업안전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 중인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아리셀 참사 이후 180일이 지나고 있다. 그사이에 각종 중대재해와 불법 계엄,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리셀 참사 책임자 처벌과 근본 대책 수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며 노동 현장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 불법파견 구조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식 노조 경남지부장은 12월 10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전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 사태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단식 중인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 농성 중인 한국유타칼하이테크 노동자,

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말았다”며 모금 배경을 밝혔다.

김일식 지부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남지부 금속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끝까지 싸워 책임자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이라는 요구를 쟁취하길 바란다. 금속노조도 그 길에 함께하겠다”고 연대의 말을 전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사회연대사업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119 운영 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운동도 함께하고 있다. 조은성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부장은 “조합원 매월 일천원 모금해서 사회연대사업 진행하고 있다”며 “경남지부를 필두로 이같은 사회연대가 금속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금 직접 전달은 12월 17일 오후 7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

관 앞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시민주모제’에서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경남지부를 대신했다. 엄상진 사무처장은 “아리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함께 끝까지 연대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외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에 앞장서겠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겠다. 약질 자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는 12월 24일 오후 5시 ‘끝까지 싸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투쟁 문화제’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다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며 “연대에 감사드리며 한 해 매듭을 같이 지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